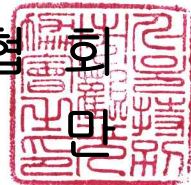


## <건물 입주 사(관광업체) 회생을 위한 임대료 감면 요청>

1. 사장님의 노고가 참으로 크십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즈음하여, 귀 건물의 안전과 입주자분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그 여파는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 건물의 입주 사는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경영 손실로 인해 생업 자체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과 함께 극복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3. 생존에 직면한 소규모 업체가 현실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임대료입니다.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든 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 기회에 입주사와의 상생을 위한 담대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4. 이에, 한시적으로(2월~6월)으로나마 30%~50% 정도의 임대료 감면(인하)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입주해 있는 관광업체의 코로나19’의 피해 극복과 회복 노력에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이러한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상생 협력이 가능하다면,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인 귀 건물의 입주 사가 회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조기 회복을 통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입주 사의 어려움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장 남상환





위기의 관광업계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근심과 노고가 크십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유독 크게 체감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장기불황까지 우려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관광시장은 전례 없는 벼랑 끝 위기를 맞았습니다. 관광산업 전반이 줄도산의 공포로 내몰리면서, 관광업체는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경영 손실로 인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존 위기에 직면한 업체에게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건물 임대료입니다. 선뜻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입주해 있는 관광업체의 피해 극복에도 더 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을 약속한다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마저도 누그러질 것이라 믿습니다.

‘환난상홀(患難相恤)’이라는 말처럼,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고 의지하였습니다.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대인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서로의 백신이 되어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여러분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 1~6월에 깎아준 임대료 절반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나민수 기자 | chip437@seoulfn.com | 승인 2020.02.28 15:22 | 댓글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N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 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